

管 区 事 務 所  
〒162-0805  
東京都新宿区矢来町65番  
電話 (03)5228-3171  
FAX (03)5228-3175

日 本 聖 公 会

NIPPON SEI KO KAI

PROVINCIAL OFFICE  
65, Yarai-cho, Shinjuku-ku  
Tokyo 162-0805, Japan  
Tel. 81-3-5228-3171  
Fax. 81-3-5228-3175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포함한 처리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반대한다”

2023년 7월 19일

수신: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귀하  
경제산업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귀하  
환경대신 니시무라 아키히로 귀하  
부흥장관 와타나베 히로미치 귀하  
자원에너지청장관 무라세 요시후미 귀하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통해 정화처리한 처리오염수에 대해 일본정부는 곧 해양방출의 개시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성공회 정의와 평화위원회 및 대한성공회 한일협력위원회는 이 조치에 반대합니다.

ALPS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후쿠시마현 내외의 자치체 의회나 어업 협동조합 및 후쿠시마현 어업 조합 연합회가 ‘어업자의 총의로서 절대 반대’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최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이 7월 1일 서울 중심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라’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주변해역에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 윤석열정권의 대응을 비난했으며, 한국의 시민들은 각 도시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꾸준히 외치고 있으며 한국교회 또한 성명서와 서명,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양방출계획의 안전성 검증을 국제원자력기관(IAEA)에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합치한다’라는 포괄 보고서를 입수하여 계획대로의 단계적인 방출이라면, 사람이나 환경에 주는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다”라는 평가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의 티모시 무소 생물학과 교수는 2023년 6월 2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트리튬 관련 과학문헌 약 70만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트리튬이 인체 등에 미치는 생물학적 영향을 일부라도 다룬 연구는 250건(0.03%)에 불과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발암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중 불과 14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마우스 등의 실험용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사실상 한 번도 수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합니다. 덧붙여서, 트리튬에 피폭한 실험용 마우스에서는 명확한 강한 영향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트리튬은 유전독성과 발암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식계에도 생물학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무소 교수는 트리튬이 잠재적으로 중요한 발암 성물질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선량에 노출된 집단의 위험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정보가 압도적으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管 区 事 務 所  
〒162-0805  
東京都新宿区矢来町65番  
電話 (03)5228-3171  
FAX (03)5228-3175

# 日 本 聖 公 会

NIPPON SEI KO KAI

PROVINCIAL OFFICE  
65, Yarai-cho, Shinjuku-ku  
Tokyo 162-0805, Japan  
Tel. 81-3-5228-3171  
Fax. 81-3-5228-3175

2023년 2월 7일에 개최된 태평양 제도 포럼의 대표단과의 회담에서 키시다 내각 총리 대신은 “ALPS 처리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관해서, 일본 국민 및 국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본의 총리 대신으로서 자국민 및 태평양도서국의 국민의 생활을 위협에 노출시켜 인간의 건강 및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형태로의 방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재차 약속한다.”는 취지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외무성의 HP)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위협을 무엇보다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핵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는 사회는 항상 그 위험성을 다음 세대에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의해 필연적으로 낳은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이나 가혹한 사고에 의해, 광범위한 지역에 확산된 방사성물질의 제거나 안전한 처분이 얼마나 어려움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 8:22)

우리는 ALPS 처리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국민의 충분한 이해가 얻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양 방출 이외에 대형 탱크 저류, 모르타르 고화 처분 등 이미 실적이 있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려의 여지를 남겨두고 해양 방출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은 물론,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실시하여 다른 처분 방법에 대한 검토와 그 실시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일본성공회 정의와 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한일공동위원회는 공동으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전의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후의 방사성 물질 트리튬을 포함한 처리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반대를 표명합니다.

대한성공회 한일협력위원회 위원장 주교 박 동신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사제 천제욱  
생명기후연대 회장 사제 오동균

일본성공회 일한협동위원회 위원장 주교 이소 하루히사  
정의와 평화위원회 위원장 주교 우에하라 에이쇼우  
원전문제프로젝트 프로젝트장 주교 하세가와 키요스미